

우주가 내 집이요, 나와 한 몸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사는 집의 평수를 따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제840호 2011년 6월 15일 수요일 (음력 5월 14일 · 불기 2555년 · 주간)

불사심의기구 절실

정부 규제 완화는 불교계의 자정능력 시험대

전통사찰과 관련된 각종 규제 조치가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자율성 강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3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에 따르면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의 대지조성 규모를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대지면적의 30% 범위(최대 1만㎡ 미만)에서 추가로 대지조성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전통사찰 등의 건폐율을 30%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5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불교계는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불사가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 사찰의 경우 법적 규제도 화장실조차 신축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조치에 따른 내적 정화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각종 규제에 묶여 있던 상황에서 규제가 완화되고 동시에 사찰들이 무분별한 대형 불사에 나설 경우 생태 및 수환경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퇴후 스님은 규제 완화로 불교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그 속에서 불교 스스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후 스님은 "목적에 맞는 불사를 해야 한다. 불사심의위원회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불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불교와 정책 운영위원 범은 스님도 난개발과 불사 난립을 우려했다. 범은 스님은 "사찰들의 외형적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사심의위원회 등 종단의 내부 시스템 확립과 스님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증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규제완화와 더불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불사심의위원회는 이미 수년 전부터 불교 각 계에서 제기돼 온 사안이다. 2007년 교단자정센터가 마련한 '건축불사 관리법 제정 토론회'에서 김형남 변호사는 불사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각 사찰의 불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단도 3월 23일 5대결사를 위한 세부 지

침을 발표하면서 종단실천과제로 불사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단자정센터는 10일 발표한 논평에서 "총무원이 진정으로 자성과 쇄신의 결사를 추진해 나갈 의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5대 결사의 기초가 될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재정 투명성 강화방안, 공정한 인사 및 사법제도 개혁방안, 종단의 민주화 개선방안, 건전한 승가공동체 회복 방안 등을 밝혀야 한다"며 구체적 추진방안을 촉구했다.

불사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정부규제가 까다로운 상황에서 종단마저 규제할 경우 발생할 사찰들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구성 필요성만 제기돼 왔다. 대신 종단은 성보보존위원회를 통해 불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무부가 이 의견을 검토해 승인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자 불교계 자정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필요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자승 스님은 대정부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종단의 불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문화부 관계자는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심의에 착수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앞서간 발자국을 따라 한국 근현대 선지식들이 두루 거쳐 간 영천 은해사 운부암. 6월 6일, 절 앞의 연못 속에서 목탁소리가 들려오고, 하인거 중인 선방 운부암에서는 죽비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선방을 벗어난 스님이 앞서간 선지식들의 발자국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돌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다시 죽비 소리가 들려왔다. 박재관 기자

MB "사회적기업, 종교단체 적합"

이명박 대통령이 6월 9일 서울 수유동 사회적 기업인 한빛예술단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사회적기업은 봉사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는 대기업 보다 종교 단체가 적합하다"며 종교계 사회적기업의 확산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 확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이라며 "사회

적기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성을 가지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불교계 사회적 기업인 연우와함께 이재원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 부사장은 불교계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역사·자연환경·보건·음식·특화작물 관련 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상언 기자
관련기사 6면

봉은사, 역사공원 된다

외국인 위한 영빈관 등 신축

강남 봉은사(주지 진화)에 외국 인사의 사찰 체험 공간이 들어서는 등 봉은사가 역사공원으로 새롭게 바뀐다.

서울 강남구는 도시계획시설 조성 계획안을 최근 공고했다. 이번 계획안이 결정되면, 그동안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중·개

축이 불가능했던 봉은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불법건축물이었던 화장실, 안내소 등 부대시설도 도시계획상 시설로 인정받게 된다.

봉은사는 2층 규모의 영빈관을 비롯해 일주문과 해탈문, 천왕문을 지나 대웅전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 사회! 자비의 미안마 듣기 DREAM 꿈

인구의 89%가 불자인 나라, 미안마 불자의 희망을 위해 부처님의 자비심을 전합니다.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양곤 나인피어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종합대학교 지원
- 식수가 부족한 마을에 공동 우물 건설
- 신부 출가식 지원
- 불자 어린이 학용품 지원
- 전달 가능한 물품 지원

후원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 : 미안마문화원 021733-5670 / 현대불교신문 0212004-8214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미안마문화원 · 현대불교신문사 공동 연금캠페인

자승 스님, 청와대 찾았다

취임 후 세번째, 대정부 정상화 이후 첫 만남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대정부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담화문 발표 1주일 만에 청와대를 방문한다. (6월 9일 현재)

조계종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소속 7대 종교계 대표지도자 초청 오찬에 종지협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자승 스님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북 인도적 지원과 종교지도자의 평양방문 허용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총무원장스님의 이번 청와대 방문은 총무원장 취임 후 3번째 방문이다. 이번 방문은 조계종이 지난

해 12월 정부·여당의 친박한 전통 문화인식을 비판하며 정부·여당과 소통의 단절을 선언한지 6개월, 이를 정상화한 후 첫 만남이다. 때문에 그 배경과 내용에 대한 관심이 크다.

조계종 사회부 공승관 팀장은 "종지협에서 매년 대통령과 면담을 해왔다"며 "자승 스님이 종지협

회장이 된 후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자 종지협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기도 했다. 회원종단의 요청이 있어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前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2년 전 MB정부의 종교편향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청와대의 초청을 거부한 바 있다.

조동섭 기자

6개월 만에... 대정부 관계 정상화

자승 스님 담화문 발표, "결사전담기구 만들겠다"

조계종의 정부 인사의 사찰출입 제한, 국고지원 수령·집행 보류 등 대정부 조치가 6개월 만에 모두 해제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6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담화문에서 대정부 관계를 정상화하고 자성과 쇄신 결사에 집중하겠다"며 "소통 중단과 (정부·여당 인사의) 출입 제한 조치를 해소하고, 전통문화와 문화재 관련 예산 등도 정상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모든 중도와 전국 사찰의 주지스님들은 자존의 정신을 얻



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승가가 중심이 돼 결사의 정신을 실현하고 국민과 사회에 회향하겠다"며 "자성과 쇄신

결사를 위한 전담 기구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담화문 발표에 이어, 조계종 기획실장 정만 스님은 "정부·여당 관계자의 만남은 사찰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겠다. 국고 예산 수령 및 집행에 대해서는 종단이 철저한 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대정부 관계 정상화 이후 전통문화 보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사찰법, 문화재보호법 등 불교계 관련 규제법령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성과 쇄신 결사를 전담·집중 추진할 전담 기구를 6월 중 발족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840호 CONTENTS

특별담화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담화문 전문	2
불기 2555년 7월(화) 중 현장속으로 동원 어린이지도자 연수	5
특집·염불신앙 '나무에타발하는 순간, 정도'	18

찬 덕 불 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아름다운 등

팔각접등영가등

극락왕생

만월영가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小

大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kwh (인동용 LED전구)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윤장대 인등

용우사 LED 인등

보구형 위패

고구형 위패